

목포시, '목포대학교 현장캠퍼스'로 원도심 활기 충전

유휴공간 대학생 위한 전시공간·작업실로 제공 원도심 유동 인구 늘리고 학생들 작품 활동 지원 내년 3월부터 미술학과 강의 시작으로 확대 운영

목포시가 지난 24일 목포대학교와 '현장캠퍼스 운영'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원도심 살리기에 나섰다. '목포대학교 현장캠퍼스 운영'은 원도심의 유휴공간을 대학생들을 위한 전시공간과 작업실로 제공해 원도심의 유동 인구를 늘리고 지역 학생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양 기관의 상생 협력 사업이다. 현장캠퍼스는 원도심 로데오 광장 앞에 위치한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작업실과 강의실로 꾸민다. 2021년 3월

부터 미술학과 2개 과목 이상 개설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할 공간을 마련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창업공간도 제공해 청년인구가 목포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원도심은 공가, 빈상가

와 같은 유휴공간이 많은 상황이다. 원도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동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번 목포대학교 현장캠퍼스 운영으로 원도심이 대학생의 미래가 영글어가는 공간으로 조성돼 무척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유휴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유휴공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비하고 있다. 보해양조(주)와 협력해 원도심의 보해양조에 청년점포를 조성했고, 지난해 제1회 전라남도 혁신박람회를 원도심의 빈 건물을 리모델링해 개최했다. 이와 함께 구(목포경찰서 부지에 통일센터, 전남청소년미래재단,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3개 공공기관을 유치했고 현재는 건물 신축을 위해 기반 조성이 진행 중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광주시교육청-한전KPS '지역인재 양성 및 후원 위한 업무협력협약'

고졸 취업 및 지역 에너지 분야 인재 양성 활성화 지원

광주시교육청이 24일 교육감실에서 한전KPS와 고졸 취업 및 지역 에너지 분야 인재 양성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인재 양성 및 후원을 위한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력협약은 일자리 창출 및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장휘국 교육감과 한전KPS 김범년 사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은 한전KPS 인턴십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광주 소재 특성화고 학생과 교사들은 전련산업분야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KPS-

패러데이 스킴'에 참여해 기술 명장들로부터 전력산업 현장교육을 받는다. 한전KPS는 회사 고유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전남 나주 소재 인재개발원에서 전력산업 현장교육 'KPS-패러데이 스킴'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한전KPS는 정보취약계층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도 지원할 예정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력협약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과 현장실습 기회를 갖게 됐다"며 "광주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상생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호기자

영암군,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역사 프로그램 운영

키트 통한 삼국시대·고려시대 체험으로 호응도 높아

영암군 청소년수련관이 관내 초등학교 역사 수업과 연계하여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당초 캠프형 프로그램이었던 역사문화탐방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올해는 영상매체(유튜브)와 키트를 활용한 역사 수업으로 5개교 2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높은 만족도 및 그 외 학교들의 신청 문의로 프로그램을 연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역사 프로그램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행동하기(역 주 행)"이란 주제로 선사시대, 삼국시대 등 시대별 총 5회기로 나누어진 1차 교육에 이어 백제시대, 고려시대의 역

사와 문화유적을 관찰하는 과정으로 역사 교육과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민들레역사문화연구소'와 함께 진행한다. 1차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는 "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면서 그 시대와 관련된 문화재나 유물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 키트 만들기도 어렵지 않아서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역사 키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역사란 어렵고 따분한 암기식 수업이 아닌 탐구하고 재미있는 학문이라는 걸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수련관은 올해 코로나19의 영



향으로 청소년 캠프나 교육 등 대규모 집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비대면 프로그램이나 학교로 찾아가는 소규모 대면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영암군청소년수련관(470-100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여수교육청 "학교업무는 줄이고 통학버스 안전은 더하고"

2021학년도 임차통학버스 계약 추진 관련 업무 협의회 실시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대) 학교지원센터에서는 23일 관내 임차 통학버스 운영학교 23교의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학년도 임차통학버스 계약 추진 관련 업무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차 통학차량 계약 지원에 앞서 ▲단위학교별 계약 추진과정에서의 고충과 학교별 맞춤형 계약

지원을 위한 요청사항 ▲통학차량 운영 우수 학교의 정보공유 등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원활한 통학버스 계약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산단지에서 통근버스를 많이 운영하는 여수의 특성상 임차버스의 수요가 많아 소규모 학교 혹은 비시내권 학교에서는 임차통학버스 용역이 수차례 유찰되기도 하는

등 고충이 많았는데 지원청의 통학버스 계약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윤순석 학교지원센터장은 "임차 통학버스 계약지원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교 업무 경감 효과와 더불어 효율적인 통학차량 계약으로 예산 절감 및 보다 현장수요에 발맞춘 통학편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